

# 상법(相法)의 경험적 진화

최한기의 측인(測人)

서영이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한국철학 전공

buscar7010@naver.com

I. 머리말

II. 기표로서의 얼굴

III. 최한기의 진화된 측인

IV. 맺음말

## I. 머리말

각기 다른 얼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사실상 원리적으로 무한하다. 그러나 얼굴에 대한 해석이 결코 무제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대상에 대한 우리의 범주화가 ‘중적 공공성(specific commonality)’에 토대를 둔 가르기의 산물인 까닭이다. 우리의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은 상대적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강력하게 제약된다. 이러한 우리의 조건은 얼굴 해석에 대한 범주화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것일 수도 절대적인 것일 수도 없음을 말해준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타인의 얼굴 읽기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점 때문이다. 타인의 얼굴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일 수 없기에 그것이 지니는 영향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관상학적 판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관상(觀相)의 ‘판단자’이자 ‘판단 대상자’임을 말해준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혜강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측인(測人)이 기존 상법(相法)의 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한 경험적 진화의 산물임을 보이려는 것이다.<sup>2)</sup>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최한기의 측인이 인간을

---

1) 이 글의 주된 관점은 제2세대 인지과학(the 2nd generation cognitive science)의 경험 과학적 탐구 성과에 의존한 체험주의(experientialism)의 시각에 빚을 진 것이다. 체험주의에 따르면, 모든 대상의 범주화는 우리가 신체화되어 있는 방식의 한 산물이다. 우리가 형성하는 범주들은 우리 경험의 일부이며, 그러한 범주화는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것은 ‘종(種)으로서의 인간’이 공유하는 비교적 안정된 신체적·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만큼 ‘공공성’을 드러낸다. 유사한 기능의 두뇌와 몸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G. 레이코프·M. 존슨 저, 임지룡 외 역,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박이정, 2002), 49쪽 참조.

2) 이 글은 최한기의 측인이 기존의 상법에 비해 경험적으로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경험적 조건에 맞는’ 시각을 도출하여 타인 읽기의 방식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타인과의 상관적 영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조건을 감안하여 인간 읽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요소를 드러내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최한기의 측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된다. 하나의 흐름은 최한기 측인에 대한 이론적 구조와 특성을 규명한 탐색으로 이승환·이승환·구자익의 연구가 있다. 또 하나의 흐름으로는 현대 사회심리학의 지평 확장을 위해 측인의 인물 감평에 주목한 것으로 이영찬의 연구가 있다. 또 다른 흐름은 인사관리 등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탐구로 박성수·

‘관계-내-존재’, ‘세계-내-존재’로서 변화를 거듭해가야 하는 역동적 존재로 인식하며, 그것에는 결정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예측불허 영역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고, 개체의 우연성이나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고려, 그리고 반전을 포함한 마음의 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결정론적 상법의 난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연구를 ‘상법의 결정론적 구조에 대한 경험론적 반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존의 상법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이해하며, 물리적인 세계와 인간 마음의 작동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배제한다. 관계를 떠나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과 유기체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개체의 우연성, 그리고 무의식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반전구조를 인정한다면, 상법의 결정론적 판단은 인간에 대한 일면적 해석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최한기는 『마의상서(麻衣相書)』, 『수경집(水鏡集)』, 『신상전편(神相全篇)』, 『태청신감(太淸神鑑)』 등 고전의 상법서에 근거해 형모(形貌)를 판단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헤아리는 일(測人)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최한기의 측인에는 첫째, 인간을 철저히 ‘관계-내-존재’, ‘세계-내-존재’로 인식하여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자기 교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역동적 존재라는 점이 고려된다. 둘째, 그의 측인에는 행사상(行事相)이 관상학적 판단과의 교차 검증 요소로 적극 수용된다. 몸과 마음의 상은 실천적 행위와 상호 영향관계에

---

이석환·문만기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서영이, 「상법(相法)의 은유적 변용: 최한기의 측인(測人)」, 『철학』 125(한국철학회, 2015)를 참조. 이승환, 「朝鮮後期 科擧와 崔漢綺의 測人學: 『人政』 「測人門」을 中心으로」, 『한국사상사학』 16(한국사상사학회, 2001); 이승연, 「최한기의 측인학과 상법: 『인정』 ‘측인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53(새한철학회, 2008); 구자익, 「최한기의 『감평』 연구: 『감평』의 구성에 있어서 기수(氣數)의 체계와 의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이영찬, 「최한기의 인물감평과 사회심리학의 대인지각 비교」, 『한국학논집』 47(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이영찬, 「최한기의 기학적 인간학과 인물감평 범주」, 『동양사회사상』 27(동양사회사상학회, 2013a); 이영찬, 「최한기의 측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52(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b); 박성수, 「한국형 인사고과 제도에 관한 연구: 실학자 최한기의 『인정』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27(한국인사관리학회, 2003); 이석환, 「최한기 『인정』 「감평」의 인사평가에 관한 연구: 현대 기업의 인사평가방식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문만기, 「해강 최한기 인물감평 이론의 현대 과학적 해석과 응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의 자기통제감과 인물감평 변인과의 관계」, 『예술과 미디어』 14(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5).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의 측인에는 인간의 예측불허 영역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최한기는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형모를 현격히 바뀌게 하며, 이렇듯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까지 감안하여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한기의 측인은 타고난 용모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기존의 결정론적 상법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에 대한 통찰이 고려된 인간 읽기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법의 경험적 진화’<sup>3)</sup>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의 측인은 타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중요한 기여적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적용될 때, 상법적 판단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인에는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과 인지적 반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정론적 상법의 난점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일면적으로 유효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기표로서의 얼굴

타인의 얼굴은 나의 생존을 위한 중요 기표다. 사람의 얼굴과 몸은 단순히 눈, 코, 입, 그리고 팔, 다리 등의 집합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얼굴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무늬는 인종, 성별, 나이만이 아니라,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가지는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징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얼굴 표정, 음성, 몸짓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나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발시킨다. 우리의 얼굴과 몸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별개일 수 없으며, 거기에 다시

---

3) 인간의 경험적 조건에 대한 결정론적 지식은 완고한 ‘믿음’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의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은 현저한 공공성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토대로 확장된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변이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러한 유기체적 조건을 지닌 인간에 관한 지식이 결코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속성의 것일 뿐임을 함축한다. 이 점에서 최한기의 ‘측인’ 역시 인간 읽기의 완결된 지식일 수 없다. 다만, 결정론적 성격을 지닌 상법에 비해, 최한기의 측인은 적어도 우리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에 대한 ‘더 나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험적 진화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직업과 처지에 걸맞게 일정한 패턴으로 특정 무늬들이 새롭게 새겨진다. 타인의 특정 자질이나 성격, 정서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인생에 일정한, 혹은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이 담긴 얼굴을 가능한 한 정확히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관상의 판단자이자 판단 대상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얼굴이라는 기표가 지니는 막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관상학과 골상학으로 유명했던 라바터(J. C. Lavat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곤충은 동지와 적을 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과 공포를 안다. 이유를 알지는 못해도 관상에 의해서 말이다. 지상의 그 어느 누구도 매일 관상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자는 없다. 얼굴이라는 것을 보는 한 누구나 극도로 사랑스럽다거나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재고, 비교하며 관상학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관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말이다.<sup>4)</sup>

관상학적 판단은 우리 삶의 본능적 행위다. 타인의 얼굴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행위를 유발시킨다. 들뢰즈(G. Deleuze)는 얼굴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얼굴, 즉 표정을 누군가의 뜻을 알리는 수단, 즉 ‘스크린’으로 규정한다. 얼굴은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타인의 공명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명령한다. 얼굴은 이때 동일화에 대한 명령의 장 속에서 작용한다.<sup>5)</sup> 레비나스(E. Levinas) 역시 존재는 얼굴을 통해 그것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레비나스의 얼굴은 열린 의미체계다. 그는 구체적으로 얼굴이 사회적·문화적 장 속에서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적극적 명령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얼굴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한 존재가 우리와 접촉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 얼굴은 모든 범주를 벗어나 있다.<sup>6)</sup>

4) Johann Caspar Lavater, *Physiognomische Fragmente*, Vol. 1(Leipzig, 1775), p. 49(설해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한길사, 2002, 258쪽 재인용).

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새물결, 2001), 321-322쪽.

6) E. Levinas, *Difficile liberté. Essais sur le judaïsme*(Paris: Albin Michel, 1976), p. 270

레비나스에 따르면, 얼굴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  
 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계시’다. 예컨대, 타인의  
 눈길은 “너는 살생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적 요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타자의 도덕적 호소는 우리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규정하  
 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sup>7)</sup>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굴이 갖는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얼굴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끝없이 타인을 수용하기도 하고, 새롭게 의미  
 를 생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개별적인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얼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경험적 토대를 근거로  
 나름의 판단 원칙을 정하고, 얼굴을 해석하는 주체가 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얼굴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얼굴이라는 각기 다른  
 기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원리적으로 무한하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얼굴에 대한 해석이 결코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석자인 우리 자신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화는 모두 우리의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조건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약된다. 얼굴이라는 기표에 대한  
 해석이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모양의 얼굴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표에 사상된 내용인 기호  
 대상의 경험을 엇비슷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결국 얼굴이라는  
 기표에 대한 우리의 관상학적 해석은 절대적일 수 없다. 다만, 관상학적  
 구분과 그에 따른 해석은 우리의 유사한 신체적·물리적 경험에 의해  
 정형화된 가르기의 산물인 것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기  
 가 어떤 공동체적 차원의 내용적 합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 유형의  
 얼굴에 대한 확정적 판단보다 오히려 적절한 정도의 해석 가능성을  
 공유할 뿐이다. 타인의 얼굴은 인식자의 신체적·물리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판단은 해석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읽힐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49쪽 재인용).

7)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문학과지성사, 2005), 148-149쪽 참조.

8) 노양진, 「기호적 경험의 체험주의적 해명」, 『몸·언어·철학』(서광사, 2009), 178쪽  
 참조.

수 있다. 그것은 시대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특정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다른 특성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관상학이 수사학에 응용되던 때이고, 웅변가는 관상학적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하게 정형화된 인간형을 묘사함으로써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중세의 관상학은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소로 수용되었기에, 아리스토텔레스 관상학의 원칙이었던 동물과의 비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독교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간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간의 가치’를 한껏 고양시키는 때였기에, 고정된 신체와 각 부분의 모양·빛깔 혹은 고착적인 천성보다 전체적인 ‘몸짓’과 ‘감정’이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관상학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근대사회를 지배한 이른바 ‘과학적 합리주의’의 전통은 관상학의 예언적 기능을 뚜렷하게 쇠퇴시킨 반면, 성격 분석적 관상학은 새로운 과학의 외피를 입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문화적 전통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sup>9)</sup> 이처럼 얼굴, 혹은 몸짓에 대한 판단은 그 대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특정 의도에 따라 매우 ‘파편적’이고 ‘축약적’이며 ‘생략적’으로 해석된다.

얼굴의 유형과 성격, 행동의 관계를 해명해보려는 시도들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관상학의 역사는 존재하며, 특히 서양 관상학의 대가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자연철학자, 신학자, 의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양의 대표적인 관상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상학』, 라바티의 『관상학』이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 두루 통용되는 상법은 중국에서 체계화되어 전해져 왔는데, 『달마상법(達磨相法)』, 『마의상법(麻衣相法)』, 『수경집』, 『신상전편』, 『대청신감』 등이 주된 관상서로 알려져 있다. 동·서양의 상법 고전들은 뿌리 깊은 관상학의 역사를 대변해준다. 최근에는 상법을 근간으로 각기 다른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의 응용을 시도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 경영학, 마케팅, 메이크업, 의류학, 애니메이션 등 각종 분야의 얼굴 유형별 분석에 관한 확장적 연구들은 여전히 상법이 갖는 현재적 유효성을 반증해준다.<sup>10)</sup>

9)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한길사, 2002) 참조.

10) 최근 동양의 관상 자료를 근거로 한 ‘직접적 접근’이 미약하게 포착되며, 융합 학문으로서의 ‘간접적 접근’은 비교적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서양의 관상학사’로 불릴 만한 국내 저서로는 앞서 소개한 설혜심의 연구가 있다.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는

그러나 여전히 유념해야 할 사실은 현재적 유효성이 상법적 해석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관상학적 해석은 유기체인 인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일 수 없다. 관상서들은 개별자로서 사람의 얼굴·뼈·가슴·발의 생김새, 음성·걸음걸이·앉은 모양·누운 모양·먹는 모양 등을 통해 결정론적으로 인간 운명의 길흉을 판단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변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상법은 인간의 변화 요소, 즉 반전적 요소를 함축한 신체적·물리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최한기의 측인을 통해 인간 읽기의 진화된 방법론을 검토해보려 한다.

### III. 최한기의 진화된 측인

#### 1. 상법의 경험적 확장

최한기는 상법을 측인법에 도입하고 인간의 가변적 요소들을 보완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한 개화 철학의 선구자다. 그의 측인법은 타고난 용모에 중점을 두고 결정론적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상법과 인간의 가변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융합,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최한기는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죽기 전까지 '사람을 헤아리는 일(測人)'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평생 남과 교류하지 않고 남과 일을 함께 하지

---

서양의 관상학을 '구별짓기'의 한 양식으로 접근한다. 동양의 관상 자료를 근거로 한 직접적 접근으로는 강선구와 주선희의 연구가 있다. 또한 '간접적 연구'로 메이크업, 의류학, 애니메이션, 영화·방송, 얼굴 관상 설계 시스템, 마케팅, 경영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관상을 적용한 성과물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강선구, 『얼굴유형과 성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상학적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강선희·김효동·이경원, 「동양 관상학을 적용한 성격별 얼굴 설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1(한국디자인학회, 2008); 김경희, 「아이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눈썹과 눈의 형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한국미용학회, 2008); 김미애, 「얼굴유형별 창업자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김수동, 「눈썹유형별 의복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9(한국감성과학회, 2006); 김지홍,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관상학적 분류를 통한 외형적 형태와 내면적 성격의 기본 모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49(한국디자인학회, 2002); 주선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않는 사람은 측인의 술(術)이 없어도 되겠지만, 목숨이 다하기 전에야 어찌 남과 교류하고 남과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sup>11)</sup>라고 하여 측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상법을 비방하는 자도 측인의 술이 없을 수 없고, 상법에 어두운 자도 측인의 술이 없을 수 없다. [...] 한두 사람과 교류하는 일에서부터 수십여 명과 교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근거로 저 사람을 비교하고 저 사람을 근거로 이 사람을 비교하여 우열을 분별하여 일을 감당할 사람을 가려내니, 이것이 곧 측인의 술이다.<sup>12)</sup>

최한기는 얼굴 해석에 대한 변이의 공통 기반으로 측인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사람이 모두 같지 않고, 헤아리는 조건이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유사한 종적 조건을 갖고 있기에 백 사람을 헤아리는 것은 천하 사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하 사람을 헤아리는 것도 열 사람 백 사람의 호오(好惡)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3)</sup> 최한기는 측인의 방법에는 원래 일정한 규칙이 없지만, 그 일정함이 없는 속에서 2-3분의 정할 수 있는 것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sup>14)</sup> 이러한 최한기의 시각은 인간에 대한 관상학적 해석이 완전한 것일 수는 없지만, 같은 종으로서 일정 정도의 해석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한기는 36세(1838) 때 측인에 관한 초기 저작인 「감평(鑑評)」을 완성했다. 그것은 사실상 58세(1860) 때 완성한 『인정(人政)』의 모태였다. 「감평」은 인물 평가에서 수치화된 척도를 제시하여 나름대로 정형화하려는 시도였으며, 그것의 확장적 논의가 바로 22년 후에 완성된 『인정』 25권이다. 최한기는 「감평」의 평가 범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품을 비교하는 데 분수(分數)가 없을 수 없다. [...] 그러나 반드시 이것에만 의존하여 인품을 정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열을 분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측인의 뒤에 편집하여 권정을 밝히는 척도로 삼았다.”<sup>15)</sup> 「감평」이 기품, 심덕, 체용, 문견, 처지 등 오구(五具)와 재주와

11) 崔漢綺, 『明南樓全集』 2, 『人政』 卷2, 「測人門二・相法測人有無」, 40쪽 아래. 이 글에 인용된 최한기의 원전은 崔漢綺, 『明南樓全集』 1-3(여강출판사, 1986)을 저본으로 하며, 이하는 구체적 책명과 편명, 쪽수만 밝힌다.

12) 『人政』 卷2, 「測人門 二・相法測人有無」, 40쪽 아래-41쪽 위.

13) 『人政』 卷2, 「測人門 一・測人爲萬事本原」, 28쪽 아래 참조.

14) 『人政』 卷1, 「測人門 一・無一定規」, 22쪽 아래 참조.

국량, 응변, 풍도, 경륜, 조시 등 오발(五發)을 제시함으로써 형모와 행사 중심의 감별에 그쳤던 반면<sup>15)</sup>, 『인정』 「측인문」에서는 용모, 행사, 오류, 천인운화, 지위, 인도 등 여섯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측인의 척도를 확장시켰다. 「감평」은 『인정』 「측인문」 권7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은 「측인문(測人門)」, 「교인문(敎人門)」, 「선인문(選人門)」, 「용인문(用人門)」 등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을 어떻게 감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써서 실질적 효용을 높일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측인은 교인, 선인, 용인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용인의 근본은 선거(選舉)에 있고, 선거의 근본은 교인에 있고, 교인의 근본은 측인에 있다. 능히 측인하지 못하면 교인할 수 없고, 능히 교인하지 못하면 선인할 수 없고, 능히 선인하지 못하면 용인할 수 없다. [...] 이 때문에 측인은 용인의 근원이 되고, 용인은 측인의 효험이 되며, 교인과 선인은 다만 그 사이의 수행 단계이다. 이 네 부문은 서로 통하고 서로 근거가 되어서,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되는 것과 같으니 단절이 있을 수 없다.<sup>17)</sup>

최한기가 것처럼 측인을 중시한 까닭은 사람됨을 제대로 감별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잘 갖추어졌더라도 끝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크고 작은 일을 경영할 때 사람 때문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는 벼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사람을 등용하는 일까지 “인품을 감별하는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급선무”<sup>18)</sup>라고 본다. 따라서 그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연구하는

15) 『人政』, 「人政序·人政凡例」, 5쪽 위-아래.

16) 『人政』 卷7, 「測人門 七·鑑秤」, 101쪽 위-133쪽 아래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비율(%)
오구(五具)		오발(五發)	(총 105%)
기품(氣稟)	강(強)·약(弱), 청(淸)·탁(濁)	재주와 국량	40
심덕(心德)	성(誠)·위(僞), 순(純)·박(駁)	응변(應變)	30
체용(體容)	후(厚)·박(薄), 미(美)·추(醜)	풍도(風度)	20
문견(聞見)	주(周)·비(比), 아(雅)·속(俗)	경륜(經綸)	10
처지(處地)	귀(貴)·천(賤), 부(富)·빈(貧)	조시(措施)	5

17) 『人政』 「人政序·人政凡例」, 5쪽 아래-6쪽 위.

18) 『人政』 卷7, 「測人門 七·鑑秤」, 101쪽 위.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 최한기에게 인품 감별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최한기 측인의 첫 단계는 관상학적 시각에 적극적으로 의존한다. 『인정』에 인용되는 관상학 고전은 주로 『마의상법』, 『수경집』, 『신상전편』, 『태청신감』 등이며, 이들을 근거로 이목구비, 사지(四肢), 백해(百骸), 모발(毛髮) 등 타고난 생물학적 형모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모를 파악하는 최한기의 측인은 기존의 상법과 유사하다.

최한기: 눈은 정신이 모이는 곳으로 [...] 길고 수려하고 분명해야 한다. 희기는 옥과 같고 검기가 옷(漆)으로 점찍은 것과 같으면 [...] 매우 귀한 상이다. 만약 눈이 짧고 작으면서 밝으며, 특이한 빛을 내면 귀하고 오래 산다.<sup>19)</sup> 『마의상법』: 눈이 길면서 깊으며 빛나면서 윤택한 사람은 대귀(大貴)하고, 검기가 옷으로 점찍은 것같이 검으면 총명한 문장이요, 눈망울이 숫지 않고 작연히 광채가 나는 자는 부귀하다.<sup>20)</sup>

최한기: 코는 얼굴의 표적이요 폐기(肺氣)의 통로다. 폐가 비면 코가 통하고 폐가 차면 코가 막힌다. 콧구멍이 들여다보이지 않으며 준두가 둥글고 풍만하며 빛이 윤택하고 우뚝 솟을 경우, 귀하지 않으면 오래 살거나 부유하다.<sup>21)</sup> 『신상전편』: 폐가 허(虛)하면 코가 통하고(通) 폐가 실(實)하면 코가 막힌다(塞). 그러므로 코의 통색(通塞)으로 폐의 허와 실을 알 수 있다. 준두는 둥글고 콧구멍은 들여다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 난대(蘭台), 정위(廷尉) 두 곳이 서로 웅하면 부귀한 사람이다.<sup>22)</sup>

최한기: (입이) 뾰족하거나 뒤집어지고 틀어지거나 얇으면 빈천하다. 말을 하지 않는데도 입이 움직이거나 불을 부는 듯한 모양이거나 세로선 무늬가 입으로 들어가면 모두 흉하다. 자줏빛이나 검은빛을 띠면 걸리는 일이 많다.<sup>23)</sup>

『마의상법』: (입이) 뾰족하거나 뒤집어지고 틀어지거나 얇으면 빈천하다. 말을 하지 않는데도 입이 움직이고 또 말 입(馬口)과 같으면 굶주리게 된다. 자줏빛이나 검은빛을 띠면 걸리는 일이 많다.<sup>24)</sup>

19) 『人政』 卷3, 「測人門 三·眼」, 49쪽 위-아래.

20) 麻衣相士, 『麻衣相法』(台北: 武陵, 2000), 64쪽.

21) 『人政』 卷3, 「測人門 三·鼻」, 49쪽 아래.

22) 陳搏, 『神相全篇』 卷3(台南: 大孚, 1986), 20쪽.

23) 『人政』 卷3, 「測人門 三·口舌脣齒」, 50쪽 위.

24) 麻衣相士, 앞의 책, 78쪽.

이렇듯 최한기의 형모에 대한 판단은 고전적 상법과 다르지 않다. 상법에는 얼굴의 구성을 살피는 면상(面相), 뒷모습 혹은 흔적을 살피는 배상(背相), 골격을 살피는 골상(骨相), 마음을 살피는 심상(心相)이 있다. 이 중 상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심상이며, 최한기 역시 단순히 표면의 귀·눈·입·코만으로 길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최한기는 표면의 귀·눈·입·코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내면의 장부(臟腑)와 혈맥(血脈)에 응해 있는 귀·눈·입·코의 근거를 검증해보라고 한다.

사람은 안에 소형체가 있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잡고 발로 다니는 기능(機能)은 모두 안에 있는 장부(臟腑)와 혈맥(血脈)에 응하여 안의 귀·눈·코·입·손·발이 되고, 신기의 체(體) 역시 안에 갇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외면에 나열된 귀·눈·입·코·손·발은 나무의 가지와 잎, 방의 지게문과 창문 같은 것이다. 상 보는 자가 단지 그 외면의 귀·눈·입·코만 보고 그 소형체인 귀·눈·입·코를 보지 못하니, 속된 상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다.<sup>25)</sup>

최한기는 외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내리는 단순한 판단은 일면적으로 인품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인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드러난 형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추측해보고, 그것을 다시 표면으로 드러난 것과 비교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한기의 이러한 시각은 형모와 심상을 중시하는 관상학적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한기는 “상인(相人)의 술은 천단(淺短)·편협(偏狹)하여 평생 천착하는 것이 단지 형질(形質)과 색태(色態)뿐이지만, 측인의 도는 주편(周遍)·통달(通達)하여 안팎을 참고하고 증험하는 것이 오직 교점운화에 달려 있다. 사람을 상 보아서 헤아리고 사람을 헤아려서 상 보아 서로 발명하면 이보다 더할 것은 없다”<sup>26)</sup>고 하여 기존 상법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물과 어떻게 교점하는지를 확인하여 관상학적 판단과 교차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최한기가 보기에 기존의 상법적 판단은 개별자의 형모와 심상만 판단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상의 성격과 길흉에 대한 판단은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최한기는 인간을 외파로 떨어진 개별적

25) 『人政』 卷1, 「測人門 一·內小形體」, 20쪽 아래.

26) 『人政』 卷2, 「測人門 二·三等測人」, 38쪽 아래.

존재가 아니라 ‘관계-내-존재’, ‘세계-내-존재’로서 얼마나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여부를 관상학적 판단과 함께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한기는 이처럼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행사상’을 새롭게 제시한다. 용모가 귀하게 생긴 사람도 행사가 반드시 다 선한 것은 아니며, 용모가 천하게 생긴 사람도 행사가 반드시 다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결국 행사의 귀천으로 용모의 귀천을 징험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런 이유로 최한기에게 “행사의 상법은 가장 광대하고 절실”<sup>28)</sup>한 것이다. 몸·마음의 상(相)은 행사를 통해 현상적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에, 실제 행사로 나타난 것을 살펴봄으로써 관상학적 판단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사를 밝히지 않으면 세상의 선악을 증험할 데가 없으며, 행사를 말하지 않으면 모든 길흉에 아무런 지표가 없게 되고, 행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일, 어렵고 쉬운 일에 일체 권징(勸懲)이 없게 되며, 행사를 가리지 않으면 분수를 잃고 절도에 벗어나는 일을 조금도 기탄없이 하게 되는 법이다.”<sup>29)</sup> 최한기의 상법에서 귀천과 길흉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결정적으로 ‘행사상’에 달려 있는 셈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면상이 배상만 못하고 배상이 심상만 못하다” 하였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심상만으로는 오히려 미진한 데가 있으므로 ‘심상이 행사의 상만 못하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면상의 길흉은 결국 행사로 드러나고, 배상의 길흉도 행사로 드러나며, 심상의 길흉도 반드시 행사로 드러나니 [...] 면상·배상·심상은 모두 행사의 상에서 참험(參驗)해야 한다.<sup>30)</sup>

이렇듯 최한기에게 행사상은 몸·마음의 상을 검증하는 결정적 열쇠다. 이 점은 최한기의 측인이 실증적·경험적임을 반증한다.

최한기가 제안한 행사상은 다분히 유가적 지향을 담고 있다. 그의 측인은 기존의 상법에서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평가 대상이 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사회적 요구에

27) 『人政』 卷4, 「測人門 四·行事貴賤」, 60쪽 위.

28) 『人政』 卷4, 「測人門 四·行事廣大」, 61쪽 아래.

29) 『人政』 卷4, 「測人門 四·行事多準」, 61쪽 아래-62쪽 위.

30) 『人政』 卷4, 「測人門 四·行事相」, 61쪽 위.

부합되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측인의 도는 먼저 용모를 보고 기품의 청탁(淸濁)·강약(強弱)·혼명(昏明)·통색(通塞)을 분별하고, 다음은 행사를 살펴서 귀천·선악·이둔(利鈍)·성패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인도(人道)에 어긋나느냐 합하느냐를 가지고 포품을 삼는다.”<sup>31)</sup> 그의 측인은 먼저 현재 눈앞에서 준거(準據)가 될 수 있는 형모의 귀천으로 일차적 판단을 한 후, 행사를 살펴서 인물 교접의 충실도로 귀천과 길흉을 교차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인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로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것이다. 최한기에 따르면, 모든 백성에게 비방받으면서 ‘그 자체로’ 귀한 행위는 없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실천, 즉 실제 행위의 결과를 통한 상호 검증의 결과이지, 그 자체로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처럼 ‘행사’를 사회적 맥락, 즉 인도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의 핵심적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 사람됨이 능히 크고 작은 일에 도움되는 일을 힘껏 행하여 인도의 일에 성취한 바가 있으면, 그의 상모(相貌)가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귀한 것이니, 어찌 더 이상 논할 것이 있으랴. [...] 역대 이래로 사책(史冊)에 나타난 성현(聖賢)의 칭호와 패역(悖逆)의 이름은 모두 사업과 행사에 의해 만세의 감계(鑑戒)로 남겨진 것이니, 어찌 용모의 귀천으로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겠는가?<sup>32)</sup>

최한기의 시각에 따르면, 한 고을, 한 집안에서 존경과 흠모의 표준이 되는 것은 행사가 인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추악(醜惡)의 칭호를 얻는 것은 행사가 인도에 벗어났기 때문이다.<sup>33)</sup> 최한기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세계의 변화가 한 개인과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며, 동시에 세계는 다시 나에 의해 형성된다. 세계와 나는 상호 형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상관자 없는 개별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기에, 나는 사회의 변화에, 그리고 세계의 변화에 맞게 수시변통(隨時變通)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규정되어야 하는 존재다.

31) 『人政』 「測人序」, 7쪽 위.

32) 『人政』 卷4, 「測人門 四·行事廣大」, 61쪽 아래.

33) 위의 책, 61쪽 아래 참조.

무릇 일에서 추이(推移)하고 변통(變通)하는 도리가 없다면, 반드시 견해가 고루하고 막혀서 논의를 펼 수 없고 수족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니, 어찌 교접의 운화를 다할 수 있겠는가? 상법에 있어서도 다만 외면의 이목구비만으로 귀천과 길흉을 논한다면, 형태의 비척(肥瘠)·고윤(枯潤), 풍만(豐滿)·측편(側偏), 색태(色態)의 미악(美惡), 짐승의 형상으로 비유하거나 사마귀나 지문의 위치만 말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안의 소형체와 밖의 대형체를 모르는 것은 물을 대면서도 그 근원과 끝을 모르고, 나무를 기르면서도 뿌리를 모르고 가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어찌 체용(體用)과 본말(本末)을 통달하여 변통할 수 있겠는가?<sup>34)</sup>

최한기의 측인은 인도를 행사상의 준거로 삼으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변통의 도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유가적 이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최한기의 측인은 ‘관계’로부터, 그리고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에 대한 경험적 탐색의 결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최한기의 시각 전환을 ‘상법의 경험적 확장’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에 대한 측인의 경험적 진화가 상법의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한기에게 그 둘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

생각건대 용모와 신기는 사람의 형기(形器)이고 행사와 인도는 사람의 운화(運化)이니, 어찌 둘로 구분하여 전혀 관련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서로 발명되는 보탬이 있어야 한다. [...] 이에 그 용모와 신기를 가지고 행사와 인도를 증험하고, 행사와 인도를 가지고 용모와 신기를 비교한다면, 이것이 곧 형기와 도리가 서로 근원이 되고 경전(經典)과 상서(相書)가 서로 발명되는 것이다.<sup>35)</sup>

결론적으로 최한기는 ① 형모를 헤아리고, 그것을 토대로 ② 내면(소형체)을 추측하며, ③ 다시 행사를 관찰하여 형모와 내면을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④ 그 행위가 인도(대형체), 즉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귀천과 길흉을 온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최한기의 측인은 행위의 검증이 사회의 도덕적 맥락, 즉 인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유가적 지향을 함축한다. 최한기의 측인은 ① 인간을 외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닌, ‘관계-내-존재’, ‘세계-내-존재’로 인식하고, ② 행사의

34) 『人政』 卷1, 「測人門 一·大小形變通」, 20쪽 아래.

35) 『人政』 「測人序」, 7쪽 위-아래.

상을 형모의 상과 함께 관상학적 판단 요소로 포함시켰으며, ③ 인간을 사회의 변화에, 그리고 세계의 변화에 맞게 수시변통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인간의 경험적 조건을 잘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개별적 존재로서 외면의 이목구비만 가지고 귀천과 길흉을 결정론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상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결정론적 상법에서 변화의 측인으로

유기체의 활동에는 예측 가능한 영역과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 기존의 상법은 인간의 삶을 법칙적 패턴으로 파악하여 결정론적으로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것과 인간의 작동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 사고에 단순한 결정론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사고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 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sup>36)</sup> 인간에게는 ‘심리적 반전’을 일으킬 예측 불가능한 마음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사고와 경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혹 인간 활동에 개입되는 물리적·생물학적 요소를 모두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조합되는 방식은 결코 법칙 지배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그 조합의 알고리즘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뿐만 아니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세계와, 그리고 타자와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위해 끊임없이 변통해가야만 하는 가변적 존재다.

최한기는 기존의 상법이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정론적인 상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마의상서』·『수경집』·『신상편』·『태청신감』의 책들은 모두 이목구비와 사지·백해·모발·사마귀(痣)·주름(紋)을 각각 분류하고 차례로 모아 길흉을 논단한 것으로, 일신에 있어서 길한 것이 수십 조목이고 흉한 것 역시 수십 조목이다. [...] 사람에게 저마다 이미 결정된 길흉이 있고 바뀌지 않는 화복(禍福)이 있는 것처럼

36) 에드워드 윌슨 저, 최재천·장대익 역 『통섭: 지식의 대통합』(사이언스북스, 2005), 222쪽.

37)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서광사, 2013), 54쪽.



만들어놓았으니, 이는 몸 전체의 활동하고 변화(活動運化)하는 기(氣)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단지 일면의 연추(妍醜)와 미악(美惡)만 보고서 어찌 그 필경의 길흉을 단정할 수 있겠는가?<sup>38)</sup>

최한기의 측인에는 첫째, 마음의 반전이 반영되어 있고, 둘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와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셋째, 세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형모를 가정한다. 최한기에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은 확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결정적 요소다. 형모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는 마음에 따라 형모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모를 근거로 변하는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만, 변하는 마음을 근거로 형모를 헤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형모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형모는 정해진 것이 있고 심정(心情)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것이 있는 형모에서 정해진 것이 없는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 반드시 어긋난 것이 많으니, 형모만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의 변함에 따라 형모도 그 색태(色態)가 변하고 형모의 색태가 변함에 따라 마음도 따라가는 바가 있으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헤아리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을 헤아리면, 상인의 술(術)이 그 대강을 얻을 것이다.<sup>39)</sup>

최한기는 형모의 생김새로 길흉을 단정하는 상인(相人)의 상법을 ‘사법(死法)’으로 규정하고, 세상의 운동변화(運化)까지 읽어낼 수 있는 ‘활법(活法)’으로 측인할 것을 제한한다. 그에 따르면, 일신(一身)의 운화는 치기(稚氣)·소기(少氣)·장기(壯氣)·쇠기(衰氣)·노기(老氣) 등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그 형질(形質)이 한 계절 혹은 한 달 사이에도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쇠했을 때나 늙었을 때의 일을 미리 알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최한기는 현실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형색(形色)만으로 길흉을 예단하는 것은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일’<sup>40)</sup>이라고 지적한다.

활법으로 상인하는 것은 그 모습에 드러난 기운을 보는 것이다. 사법으로 상인하는

38) 『人政』 卷1, 「測人門 一·大小吉凶」, 13쪽 위.

39) 『人政』 卷1, 「測人門 一·有定無定」, 14쪽 위.

40) 『人政』 卷5, 「測人門 五·運化交接」, 74쪽 위.

것은 소년의 용모를 보고 말년의 화복을 판단하거나, 이전에 읽은 고서(古書)에 빠지거나, 술사(術士)들이 전하는 학설만 전하는 것이다. (이는) 형모를 초월하여봐야 할 것이 있고, 운화에 따라 변통해야 하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시속이 숭상하는 것은 사법이 많고 활법이 적은데, 진정 취할 것은 활법이 귀한 것이고 사법은 천한 것이다.<sup>41)</sup>

최한기는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세계와 상호작용 및 교섭하는 과정에서 양자 모두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 측인에 ‘활동’과 ‘변화’를 포함시킨다. 그에 따르면, 유기체로서 한 개인의 운명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세계의 변화에 철저히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남들과 교류(交接)하면서 힘을 빌리고 협력함에 따라 일의 성패와 이둔, 빈부와 궁달(窮達)이 결정되는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최한기는 “일신에 운화하는 기(氣)는 항상 천지의 운화와 정교(政教)의 운화에 따라 주선(周旋)하는 것이니, 일신의 운화가 비록 무엇인가 할 수 있더라도 대운화(大運化)를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고, 대운화 역시 비록 이를 기회를 만나도 일신의 운화에 미진함이 있으면 역시 할 수 없다”<sup>42)</sup>고 말한다. 최한기에게 세계의 변화와 유리된 인간의 개별적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최한기는 인간을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야만 하는 역동적 존재로 인식한다. 최한기의 ‘인물 감평’이라는 용어에서 ‘평(秤)’ 자는 ‘바둑판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두 사람이 바둑판을 대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바둑알 놓는 것을 헤아려서 나도 이에 기미의 변화를 베푼다. 만일 상대방의 바둑알 놓는 것이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면, 나는 다시 마땅한 바를 구하여 그에 응해야 한다.”<sup>43)</sup> 바둑판을 읽는다는 것은 ‘변화를 읽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최한기는 “사람을 헤아리는 방법은 대소를 참작하여 천지의 운화로 근본을 삼고, 통민의 운화로 처지를 삼고, 일신의 운화로 기용(器用)을 삼아야 한다”<sup>44)</sup>고 강조한다. 겉모습에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기의 발현이 서로 다르고, 설령 신기까지 서로 같더라도 시절과 재덕이 다르고, 동정(動靜)·사업(事業) 등 지향하는 것 역시

41) 『人政』 卷1, 「測人門 一·活法死法」, 16쪽 위.

42) 『人政』 卷1, 「測人門 一·形氣不同」, 17쪽 위.

43) 『推測錄』 卷5, 「推己測人·應變改度」, 137쪽 위.

44) 『人政』 卷6, 「測人門 六·貌同貴異三等運化」, 93쪽 아래.

모두 다르기에 그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측인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관상학적 판단에는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변화하는 환경은 그것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현격하게 바꿔놓기도 한다. 모습이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품, 능력, 사회적 업적이 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영(眞影)을 그리는 자가 하나의 모습을 2-3장 그려 비교해보면, 한 획의 차이에도 신태(神態)가 갑자기 달라지고 한 점의 잘못에도 기상(氣像)이 현격히 달라진다. 필묵(筆墨)으로 신기(神氣)를 나타내는 데도 오히려 호리(豪釐)에 어긋나고 맞음을 다투게 되는데, 하물며 수시로 운화하는 살아 있는 자의 몸에 있어서라. 안으로는 우락(憂樂)과 순역(順逆)의 기틀이 있고 밖으로는 비척(肥育)과 고윤(枯潤)의 형세가 있으며, 또 사물에 접할 때의 저촉되고 견제되는 격정과 사람을 부리고 통솔할 때의 주선(周旋)하고 경략(經略)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므로, 신기는 기틀에 따라 화응(和應)함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곧 하나의 유전(流轉) 활동하는 그림이다.<sup>45)</sup>

인간은 시공간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불확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일부로서 세계의 변화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정해가려 한다. 최한기는 “형모와 신기는 본디 정해진 품격이 있으니 이것이 경(經)이며, 형모와 신기는 운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위(緯)이다. 경만 알고 위를 모른다면 마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아 하나의 소리만 나오게 하는 격(膠柱鼓瑟)이니, 경을 알고 또 위를 알아 경우에 따라 증협해야 한다”<sup>46)</sup>고 강조한다. 최한기는 이렇듯 결정론적 상법을 넘어 세계의 운동 변화를 감안하는 측인법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도를 터득한 명승, 많은 신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 성직자, 세상을 달관한 노학자의 얼굴은 평온하고 따뜻하다. 그들이 터득한 생의 지혜가 그런 얼굴을 만들기도 했겠지만, 그가 쌓은 공적과 업적이 그들의 얼굴을 더 빛나 보이게 한다. 특정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인물 평가는 그 사람의 경력에 의해 거꾸로 윤색되기도 한다. 즉, 어떤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란

45) 『人政』 卷1, 「測人門 一·畫眞」, 13쪽 아래.

46) 『人政』 卷1, 「測人門 一·內外推驗」, 17쪽 아래.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훌륭한 경력이 후광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추녀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남자 같이 생긴 용모에서 범치 못할 어떤 성스러운 기분을 느낄 뿐이다. 이렇듯 우리가 쌓은 인품, 공적, 해안은 우리의 얼굴에 영향을 준다.<sup>47)</sup> 특정 유형의 형모만 보고 항구적인 인간의 본성이나, 귀천, 미래의 길흉을 예견하고,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추출하려는 시도는 가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 IV. 맺음말

타인의 얼굴은 내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기표다. 얼굴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무늬는 인종, 성별, 나이만이 아니라,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표정, 음성, 몸짓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적극적으로 내 행위를 유도한다. 그러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정확히 읽어내려 하는 까닭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한기의 측인이 기존 상법의 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한 경험적 진화의 산물임을 해명하려 했다. 최한기에게 사람을 헤아리는 일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 계기로 이해된다. 그는 고전적 상법을 인간 읽기의 한 방법으로 적극 수용했지만, 관상학적 판단이 ① 측인의 근거인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보며, ② 타고난 생물학적 모습과 다를 수 있는 행사상을 감안하지 않으며, ③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예측불허의 영역에 대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상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한기의 측인은 다음 세 가지 시각 교정을 시도한다. ①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내-존재’이자 ‘세계-내-존재’로서 세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수시변통해야만 하는 역동적 존재라는 점, ② 관상학적 판단과 함께 ‘행사상’을 교차 검증의 중요 요소로 도입해야

47) 이훈구, 『인상심리학』(학지사, 2014), 149-50쪽 참조.

한다는 점, ③ 인간에게는 심리적 반전을 일으킬 ‘예측불허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측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최한기의 시각은 인간의 경험적 조건을 잘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외면의 이목구비만으로 귀천과 길흉을 결정론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상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한기의 측인이 인간을 파악하는 완전한 것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상법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준다. 최한기의 지적처럼 우리에게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관상학적 판단이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객관적·절대적 판단 요소로 고려되는 것을 경계한다면, 최한기의 측인은 ‘지금 우리에게’ 인간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여적 요소 중 하나로 읽힐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麻衣相士, 『麻衣相法』. 台北: 武陵, 2000.
- 陳搏, 『神相全篇』. 台南: 大孚, 1986.
- 崔漢綺, 『明南樓全集』 1-3. 여강출판사, 1986.
- 강선구, 『얼굴유형과 성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상학적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강선희·김효동·이경원, 「동양 관상학을 적용한 성격별 얼굴 설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1, 한국디자인학회, 2008.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구자익, 「최한기의 「감평」 연구: 「감평」의 구성에 있어서 기수(氣數)의 체계와 의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경희, 「아이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눈썹과 눈의 형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 한국미용학회, 2008.
- 김미애, 「얼굴유형별 창업자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수동, 「눈썹유형별 의복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9, 한국감성과학회, 2006.
- 김지홍,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관상학적 분류를 통한 외형적 형태와 내면적 성격의 기본 모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49, 한국디자인학회, 2002.
- 노양진, 『몸·언어·철학』. 서광사, 2009.
- \_\_\_\_\_,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3.
-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레이크프, G & M, 존슨 저, 임지룡 외 역,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박이정, 2002.
- 문만기, 「해강 최한기 인물감평 이론의 현대 과학적 해석과 응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의 자기통제감과 인물감평 변인과의 관계」. 『예술과 미디어』 14,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5.
- 박성수, 「한국형 인사고과제도에 관한 연구: 실학자 최한기의 『인정』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27, 한국인사관리학회, 2003.
-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한길사, 2002.
- 윌슨, 에드워드 저, 최재천·장대익 역, 『통섭: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05.
- 이석환, 「최한기 『인정』 「감평」의 인사평가에 관한 연구: 현대 기업의 인사평가방식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승연, 「최한기의 측인학과 상법: 『인정』 ‘측인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53, 새한철학회, 2008.
- 이승환, 「朝鮮後期 科擧와 崔漢綺의 測人學: 『人政』 「測人門」을 中心으로」. 『한국사상사학』 16, 한국사상사학회, 2001.
- 이영찬, 「최한기의 인물감평과 사회심리학의 대인지각 비교」. 『한국학논집』 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_\_\_\_\_, 「최한기의 기학적 인간학과 인물감평 범주」. 『동양사회사상』 27,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a.
- \_\_\_\_\_, 「최한기의 측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5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b.
- 이훈구, 『인상심리학』. 학지사, 2014.
- 주선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국 문 요 약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최한기의 측인이 기존 상법의 결정론적 시각의 난점을 극복한 경험적 진화의 산물임을 해명하는 것이다. 최한기에게 '사람을 헤아리는 일(測人)'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계기로 이해된다. 그는 고전적 상법을 측인의 한 방법으로 적극 수용했지만, 관상학적 판단이 ① 측인의 근거인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보며, ② 타고난 생물학적 모습과 다를 수 있는 행사(行事)를 감안하지 않으며, ③ 예측불허의 마음에 대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상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한기의 측인은 다음 세 가지 시각 교정을 시도한다. ① 인간은 독립적인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수시변통해야만 하는 '세계-내-존재'이자 '관계-내-존재'이다. ② 관상학적 판단과 함께 '행사상(行事相)'을 교차 검증의 중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 ③ 인간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심리적 반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측인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최한기의 시각은 인간의 신체적·물리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외면의 이목구비만으로 귀천과 길흉을 결정론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상법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배타적 적용의 위험성에 빠져들지 않는 한, 최한기의 측인은 인간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여적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유효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5. 9. 21.

**심사일** 2015. 11. 2.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상법(Physiognomy), 최한기(Choi Hanki), 측인(Human Assessment), 상호작용(interaction)



## Abstracts

### The Experiential Evolution of Physiognomy: Focusing on Choi Hanki's Human Assessment(測人)

**Seo, Young-yi**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Choi Han-ki's method of Human Assessment(測人) was the experiential evolution of physiognomy that overcame the problems with the deterministic view of the traditional physiognomy. Choi understood that "figuring people out" was a deterministic opportunity to distinguish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f human life. Even though he actively embraced the classical physiognomy as one way of human assessment, he believed that it had decisive limitations in that ① it regards human beings that are the ground of human assessment as individual beings, ② does not consider Haengsa(行事) that can make people different from their innate biological appearances, and ③ overlooks the unpredictable nature of human mind. In an effort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Chi Hanki's Human Assessment included three major changes: ① Human beings are not individual beings that are separated from one another but "beings within the world" or "beings within the relationships" that need to deal with things properl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world; ② "Haengsasang"(行事相) should be introduc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a cross check with physiognomic judgments; and ③ People may show unpredictable psychological twis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human assessment. With those points Choi Hanki seems to have made certain progres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classical method of physiognomy, which makes deterministic judgments on noble and mean, good and bad luck only based on the surface features which comprise human body and physical conditions. Choi Hanki's Human Assessment can make one of the crucial contributions to reading people as long as it does not confine its applica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areas. Furthermore, it will provide some realistic insights to our specific realistic issue, "How can we interact with others?"